

「달맞이」

올 해는 전국적으로 이례적인 더운 여름이었습니다. 미야자키에서도 30도를 넘는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위도 추위도 히간(彼岸)까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더위도, 추위도 히간, 즉 춘분과 추분이 지나면 사그라들어, 쾌적해진다는 의미입니다.

* 「히간(彼岸)」이란, 불교용어로 춘분과 추분에 해당하는 1주일간을 말합니다.

이번 달에는 이 계절의 전통행사인 『달맞이』에 관해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달맞이란?】

일본의 전통행사중 하나인 달맞이는, 음력 8월 15일과 9월 13일에 달을 감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0년의 태양력으로는 각각 9월 22일과 10월 20일이 됩니다.



달맞이 날에는 참억새를 장식하고, 경단을 공물로 올리고 먹습니다.

옛날부터 일본사람들은 달을 사랑해 왔지만, 공기도 맑고 가장 아름다운 달을 볼 수 있는 이 시기에 연회를 여는 것은 헤이안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달을 보면서 시를 읊고, 그 완성도를 모두가 함께 평가하면서 술을 마시며 즐겼습니다.

【달맞이 이벤트 소개】

· 항공자위대 다카하타야마 파견기지 「관월제(觀月祭)」

구시마시(串間市)의 항공자위대 다카하타야마 파견기지에서는 매년 「관월제」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달밤의 미니콘서트·육상자위대 경장갑기동차 체험탑승·어린이 조종사복 촬영회·일본무용 등 여러가지 즐거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구시마·니치난 방향의 분들은 송영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9월 25일(토) 15:30~19:40

참가비: 무료

문의처: 0987-77-0303(내선 203)

· 북 기리시마 코스모 돔 「중추의 명월관망회」

전국적으로도 「별밤이 아름다운 마을」로 유명한 고바야시시의 「북 기리시마 코스모 돔」에서는 대형 망원경을 이용해 달을 관찰할 수 있으며, 여름부터 가을의 월야의 별이 빛나는 하늘과 목성 등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일시: 9월 22일(수) 19:00~21:00

참가비: 일반 300엔, 초등학생 및 중학생: 200엔

문의처: 0984-27-2468

이벤트에 못 오시는 분들도 가까운 공원 및 해안에서 밤하늘을 조망해 보는 건 어떨까요.

본 코너로의 질문, 의견, 요청은: (재)미야자키현 국제교류협회

TEL 0985-32-8457 FAX 0985-32-8512 E-mail miyainfo@mif.or.jp